

희망세상 (2007년 3월호 / 54호)

- 발행인 : 함세웅
- 발행일 : 2007년 3월 1일
- 발 행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TV쇼에 드러난 영국 사회의 문제

올해 1월 영국의 신문 헤드라인과 모든 방송매체를 뜨겁게 달군 기사는 단연 영국 방송국 채널 4의 빅브라더스 특집 쇼에 관한 것이었다. 빅브라더스 쇼는 원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네덜란드의 한 방송사가 그 쇼를 시작한 이후 현재는 영국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되었다. 빅브라더스 쇼는 참가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24시간 동안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여 여과 없이 생방송 또는 중계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가끔 과제가 주어지기도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시청자의 의견과 참가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퇴출함으로써 최후까지 남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두고 여러 가지 비판도 거세지만 어디까지나 텔레비전 방송사는 수익이 우선인지라 공익과 교육성은 배제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번 1월에는 좀 더 특별한 빅브라더스 쇼 특집이 있었다. 평소 참가자들은 일반인으로 구성 되었는데 가끔 특집 쇼의 구성에는 연예인과 유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이번에 참가한 유명인 중에 제이드 구디라는 20대 중반의 여성이 같이 참여한 인도의 톱 모델 실파 웨티에게 심각한 인종차별주의적인 행동을 방송에서 거침없이 보여줌으로써 영국과 인도 국가간 긴장과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공인이라는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인도인과 인도 문화를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여과 없이 보내는 방송국에 대해서, 또한 이미 영국 사회 내에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인종차별주의의 뿌리깊은 고질병에 대해서 인도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띄게 되었다. 어쨌거나 쇼에서 제이드 구디의 퇴출과 공식적인 사과로 급한 불은 꺾지만, 제이드 구디는 인도의 극단주의자들로부터 테러위협까지 받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

제이드 구디라는 여성의 인종차별적인 언사로 인하여 영국 사회가 그 원인을 영국의 교육제도에 돌리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도대체 학교에서는 뭘 가르친 거냐고 제이드 구디의 학교를 비난했더니, 학교 측답변을, 학교를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서 미처 가르칠 시간이 없었다나……. 정말 믿거나 말거나인 상황이지만 알고 봤더니 제이드 구디도 할아버지가 흑인출신으로 학교 다닐 때 심한 인종차별을 겪어서 그렇게 됐다는 아버지의 간곡한 선처 호소가 있기도 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시민교육의 세 가지 덕목

덕분에 영국의 시민교육은 그렇지 않아도 궁지에 몰려있던 상황에 힘을 얻게 되었다. 어느 사회가 그렇듯이 교육은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노동당 당수이자 총리인 토니 블레어의 대표적인 교육개혁의 하나로 꼽히는 시민교육의 정규교과목도



영국 교육기술부 시민교육 홈페이지

입은 영국의 이라크전쟁 참여로 노동당의 모든 일과 함께 한꺼번에 비판을 받아오다가, 이번 일로 정말 시민교육이 필요하구나 하고 절감을 하게 된 것이다. 제이드 구디는 다행히도 시민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였던 것이다.

2002년 새 학기부터 영국의 시민교육은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에서 법정 의무 교과가 되었고 초등학교에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거의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과목으로 학교에 등장했다. 시민교육의 이러한 등장이 사실은 하루 이틀 노력의 결과는 아니다. 1960년대부터 끊임없이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었고 마침내 2002년이 되어서야 실현되었으니, 현재 영국 시민교육의 창시자라 불리는 크릭 경(Sir Bernard Crick)의 감회는 무척이나 새롭을 것이다.

영국의 시민교육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을 가지고 있다.

-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involvement)
 - 정치 문해(political literacy)
- 다시 말해 영국의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사회적

영국의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Key stage 1	Key stage 2	Key stage 3	Key stage 4
Age	5-7	7-11	11-14	14-16Age
Year groups	1-2	3-6	7-9	10-11
English	■	■	■	■
Mathematics	■	■	■	●
Science	■	■	■	●
Design and technology	■	■	■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	■	■
History	■	■	■	
Geography	■	■	■	
Modern foreign languages			■	●
Art and design	■	■	■	
Music	■	■	■	
Physical education	■	■	■	●
Citizenship			▶	▶

■ : 2000년 8월 학기부터 시행
 ● : 2001년 8월 학기부터 시행
 ▶ : 2002년 8월 학기부터 시행

도덕적 책임감을 인식하고 지역과 국가 정치에 공헌하는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시민교육의 요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민교육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2002년 이후 현재까지도 시민교육 전문 담당교사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영국의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는 시민교육의 특성상 내용이 겹칠 수 밖에 없는 여러 교과목과 연계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주의 교육전통을 받은 영국은 교과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기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어떤 자료나 책도 교과서로 교사의 재량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의 필요성

위의 표대로 시민교육이 실시된 지 벌써 만 4년이 지났다. 시민교육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의 결과들은 학교에서 처음 시작은 어려웠지만 시민교육을 하고 나니 학생들의 정치 문해력이 향상되었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 단체들이 영국 시민교육의 보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교에서는 지식 위주의 학습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들이 학교에서 배운 시민교육의 지식적인 내용을 지역사회에서 실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시민



교육의 실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이런 민간 영역과 공교육의 교류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반응도 대체로 좋은 편이다. 특히 시민교육에서 중요시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인권의식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여전히 시민교육을 하기에는 학교 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고, 시민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제도가 잘 마련되어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선생교과목인만큼 앞으로 계속하여 새 교과목에 대한 지원과 연구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시민교육의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앞서 제이드 구디 일화를 언급한 것처럼 인권교육이다. 인권교육 안에는 당연히 남의 인권을 존중하기,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인종차별을 하지 않기 등의 소주제들이 포함되는데 영국처럼 다문화와 다문화주의의 팽창이 어느 사회보다 넓게 진행된 사회의 경우 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은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

이다.

시민교육은 한 사회가 원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안녕이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영국의 시민교육이 어쨌거나 공교육 제도 안에서 필수교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부러운 일이다.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지역사회와 국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어려서부터 갖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재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사회의 모습이 다르듯이, 시민교육이 요구하는 바도 각각의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 영국 시민교육의 사례와 현황을 통하여 한국적 시민교육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필요하다.

글 박선영

영국 버밍엄대 교육학 박사 시민교육 전공 한국 시민교육의 제도화와 활성화를 꿈꾸는 사람으로 제이드 구디가 시민교육만 받았더라도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며 제 2의 제이드 구디가 생기지 않기 위해 한국의 청소년을 위한 시민교육이 반드시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철썩 같이 믿고 있다.